

www.sungmuncare.or.kr



연화향

2018. Spring. Volume 13.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

CONTENTS



04_ 성문소식通

06_ 보호자 간담회. 2018.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07_ Zoom In 1. 치악산국립공원 '자연나누리' 체험나들이

08_ Zoom In 2. 치매전담실 프로그램

10_ 차이나는 케어 클래스 1. [복지사업팀] 우리는 성문 '프벤저스'

11_ 차이나는 케어 클래스 2. [전문요양팀] '공감케어'

12_ 나눔의 현장에서. 기타로 전하는 사랑 '여섯줄사랑봉사단'

14_ People In. 전팔순 어르신 '그 땐 아무 것도 없었어'

16_ 요양원 사람들.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하영미 영양사'

18_ Policy & Issue. 2018. 주요 장기요양급여 정책

20_ 2018. 장기요양수가 및 요양비 안내

21_ 동행. '행복'선택이 아닌 '권리'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민진홍)

22_ 2017. 결산내역

23_ 성문가이드

「성문」의 이야기를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만나는 방법

성문에서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홈페이지는 물론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밴드'를 검색-설치하신 후,

<성문서포터즈>를 찾아보세요.

성문 소식이 내 손 안으로 쓱-들어온답니다.

밴드, 게시글을 검색해 보세요

새글 피드 6

밴드 찾기

2

전체글

사진첩

일정

멤버

♥성문서포터즈♥

멤버 47 · 초대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의 멋진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

밴드 주소를 설정해 보세요

밴드 설정

표정짓기

댓글쓰기

성문노인전문요양원

1월 12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 온도계를 보고 완전 깜놀했어요~
영하 17도????????!!!!!! (실화)
정말 한파주의보 내릴만한 것 같더라고요~
서포터즈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야외활동하실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이 추운 겨울, 저희 성문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보여드릴게요~
...더보기

7

20

표정짓기

댓글쓰기

성문노인전문요양원

1월 4일

해피뉴이얼~~~입니다. 여러분~~ ^^
소식 못 드린 기간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치매전담실 어르신들이 만드신 '비누'랍니다.
쿠키 같죠???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넘 깜찍해서 '아까워서 못 쓰겠다'는 거.....(ㅠㅠ)
...더보기

채팅

새 채팅

최근 사진

더보기

02 | 03

하반기 주요소식



치매전담실 개소식

7월 3일, 원주 최초의 치매전담실 개소식이 요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이개문 스님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관계자/가족 등 50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봉사

2017년 6월 첫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요양원을 찾아오는 장병들! 요양원 청소부터 사무보조/ 노래/ 프로그램 물품 만들기까지 정말 요소요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벗과 함께> 비벼요~

2017년 특화사업인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벗과 함께>! 중북에 즈음하여 어르신들과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모두의 손맛이 보태져서 더 맛났답니다.



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8월 22일,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추정임 팀장이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해주었습니다. 현장조사 사례를 많이 들어주어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고등학교 봉사

9월 22일, 하반기 의료고등학교 봉사 첫 방문이 있었습니다. 학기마다 3회씩 봉사를 오는데요. 이 날은 어르신 나들이 지원/ 청소/ 실버세대텃밭 프로그램 보조 등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추석행사

9월 29일, 어르신들과 추석행사를 가졌습니다. 성문 가족이 모두 모여 선물 나누기/ 송편 빚기/ 윷놀이/ 노래자랑 등을 함께 하며 명절 분위기를 담백 느꼈습니다.



성문사 산사음악회

9월 29일 저녁, 어르신들과 성문사 산사음악회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가을 정취 그윽한 아름다운 사찰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연을 보니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따끔! 독감예방접종

10월 12일, 요양원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사바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어르신들도 같은가봐요.



하반기 재난대피훈련

10월 17일, 단구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재난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반복하여 몸에 익히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인 것 같습니다.



천하무적 한우바비큐파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날! 천하무적 한우바비큐파티가 10월 19일 요양원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국악비보이 에스플라바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한우를 구워드셨습니다.



결핵검진

10월 30일, 결핵협회에서 방문하여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공연

어여쁜 어린이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11월 10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아들이 갈고 닦은 감직함을 어르신들 앞에서 멋지게 선보여주었는데요. 포근한 무릎담요와 수면양말도 넉넉히 후원해주셨습니다.



난상토론

자조학습조직 다드림이 주관한 원주시의 <'더 좋은 돌봄' 성장을 위한 난상토론>이 11월 16일 저녁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눔으로 하나 된 인연

11월 23일, 무실동 디누보스시베이에서 1년 동안 성문의 어르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주신 성문서포터즈 100여분을 모시고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양급식위원회

11월 24일, 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직원 대표들이 모여 현재의 급식을 평가하고 더 나은 급식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12월 15일, 어르신/가족/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말행사 '우리는 한 가족'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및 보호자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 ★이만규 국장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12/28)
- ★김현석 과장 - 강원지방병무청 우수사회복무관리담당 표창(12/12)
- ★김숙자 전문요양팀장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상(11/17)
- ★김미주 사회복지사 - 원주시장상(9/30)
- ★주순숙 요양보호사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9/30)
- ★원정희 요양보호사 -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9/30)

2017.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시설 전달사항

2018. 장기요양 수가 인상	→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전년 대비 9.87% 인상됨. 자세한 내역은 본지 20쪽 참조
2018. 촉탁의 진료 변경 안내	→ 기존 월 1회 진행하던 촉탁의 진료를 월 2회(일반의 1회/ 정신과 전문의 1회)로 진행할 예정임. 아울러 초진비는 일반 기준 2,880원에서 3,060원으로/ 재진비는 2,060원에서 2,190원으로 인상됨.
생활실 이동 안내	→ 계약서 제15조항에 따르면 <어르신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설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방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가족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바람.
팀별 전달사항	[의료지원팀] 의료비 결제용 체크카드 관련 협조요청 의료비 결제용 체크카드를 맡기지 않은 보호자님들은 사무실에 맡겨주시기 바라며, 일정한 잔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전문요양팀] 귀중품 및 개인물품 관리 협조요청 어르신 귀중품 및 개인물품 등을 반입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인계바라며,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요양팀장/선임요양보호사에게 문의바람.
	→ [복지사업팀] 2018년도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 안내 2018년도부터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 일환으로 어르신과 가족이 유선 및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희망 가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예정인 바 많은 신청 바람.
	[영양팀] 음식물 반입 제한 및 개인간식 자제요청 단체 생활 특성 상 한 사람에게 식중독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함. 개인음식으로 식사를 하신 경우 남은 음식은 되가져 가시고, 별도의 음식물 반입은 제한함. 아울러 어르신들께서 개인 간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바,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지나친 개인식은 자제바람. [총무팀] 현금영수증 신청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실 분들은 033-745-9179 (총무팀장)으로 연락 바람.

보호자 건의사항

간담회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받아보시기를 희망함.	→ 간담회 결과를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계약자들에게 공지함.
-------------------------------	--------------------------------------

치악산국립공원 '자연나누리' 체험나들이

"에구~ 죽기 전에 내가 산을 다시 와볼 줄 몰랐어. 고마워.
하루 종일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2017년 10월 24일, 치악산의 단풍이 한창일 때 성문 어르신들이 치악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원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어르신들과 1:1로 짝을 지어 나들이 내내 함께 하였습니다.

오를 때는 숲해설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과 중간중간 숨겨 둔 보물쪽지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구요. 반환점에서는 편백나무 큐브를 작은 광목 주머니에 넣어 방향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은은한 향이 어찌나 좋은지 어르신들이 주머니 가득 채워달라고 여기저기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치악산을 내려와서는 점심으로 손두부전골과 감자전을 먹었는데, 담백하고 부드러운 국물이 서늘한 기운을 한 방에 날려주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산길, 데크가 깔려있지 않은 울퉁불퉁한 흙길에서 휠체어를 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우리 어르신들도 다 헤아리셨는지 계속 "고생한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타고 전해져 오는 따뜻함에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치매전담실 프로그램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상태 및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치매전담실>
오전/오후 빠짐없이 진행되는 치매전담실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인지 자극 활동 프로그램

인지훈련	매주 월요일 주1회 진행 1주 지남력 :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 활동. 2주 집중력 :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물건 찾기, 전래동화 이야기를 듣고 순서 정하기 3주 기억력 : 음식/물건 기억회상하기, 끝말잇기, 사라진 그림 찾기 4주 문제해결능력 : 그림카드 순서대로 배열하기, 계산하기, 관계이해하기, 단어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워크북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인지자극 활동자료를 제작하여 운영.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유지를 도모함.
회상활동	매주 화요일/ 토요일 주2회 진행 회상카드, 음식카드-요리, 옛날물건, 옛날영상 등의 각 회기에 맞게 회상활동을 진행하여 기억력 증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킴. 1주 회상카드를 보며 이야기 나누기 2주 전통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만들어 보기 3주 옛날 물건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이야기 나누기 4주 옛날 영상 감상하며 회상하기
감각활동	매주 수요일 주1회 진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여, 점차 퇴행하는 감각기능 및 인지기능을 유지함. 1. 시각/청각 활동 : 소리 듣고 물건 또는 동물 맞추기 2. 후각/미각 활동 : 과일향기를 맡고 해당 과일모형 찾기, 차를 마시며 향과 맛 음미하기 등 3. 촉감 활동 : 촉감놀이 교구를 제작 손으로 만져보고 느낌 표현하기, 감각상자 안에 있는 물건 손으로 만져서 알아맞히기 등
창조적 활동 (인지자극)	매주 목요일 주1회 진행 회기별 원예활동/ 미술활동/ 공예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작품을 완성하여 느끼는 성취감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심리재활을 통한 인지기능유지를 도모함.
음악활동	매주 금요일, 일요일 주2회 진행 매주 금요일은 실버인지놀이치료에서 많이 진행되는 컵으로 박자 맞추는 활동과 악기를 연주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음악치료를 병행하여 진행. 일요일에는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활동을 진행. 감정표출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완화 도모.

■ 매일의 활동

신체활동	매주 월요일 외부강사와 오전체조 실시 스트레칭/ 건강박수/ 율동/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진행. 신체기능 및 조작능력을 유지하고, 인지기능 유지를 도모함.
힘뇌체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양보호사와 함께 오전체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제작/보급한 치매예방체조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활동량을 증진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더불어 신체잔존능력을 유지함.

■ 여가 / 가족참여 / 사회적응훈련 / 그 외 활동

우리동네 예체능 (여가활동)	매주 목요일 주1회 진행 전통놀이, 공놀이, 몬테소리 교구 놀이, 율동 등 신체활동을 활용한 동적인 여가활동을 진행. 사회성을 유지하고 입소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함.
가족참여 활동	매월 셋째주 월요일 가족과의 유선/영상통화 진행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교류로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며, 가족에 대한 인지력을 유지시킴. 시설에서는 보호자 상담을 통해 어르신 상태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보호자의 욕구파악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사회적응 훈련	불자어르신들의 경우, 자유로운 종교활동 욕구를 해소시켜드리고자 매월 진행되는 <성문간이법회>에 참석하시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매달 말일 <모의시장>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참여 시 받은 '참 잘했어요' 스티커로 간식을 구입하는 사회활동을 진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입소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함.
그 외 활동	1. <1일 기억력 쓱쓱공부판>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인지훈련을 실시해요! 2. 선을 따라 걷기 운동을 해요! 3. 한옥으로 꾸며진 아랫목에서 차 한 잔의 여유도 가져요!



[복지사업팀] 우리는 성문 '프벤저스'



성문 사회복지사 3인이 2018년 각자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3가지 색깔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의 삶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으며 진행될 '프벤저스' 프로그램!
그 이름만큼 멋진 활약 기대해 봅니다.

한소라
사회복지사



좋은 Day

- 개요** 노인성우울 소견을 보이는 경증치매어르신들의 우울감 극복을 위한 '그룹형 회상 프로그램'입니다. 언어/음악/원예/미술/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애 주기/역사적 사건 등과 매칭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선사합니다.
- 수행기간** 2018. 01. ~ 12.
- 대상** SGDS-K 검사 결과 6점 이상으로 우울의심 소견을 보이는 자, 또는 '정상' 소견이더라도 치매의 진전으로 인한 반응결여 및 활동성 저하, 거부 등 최근 특이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된 대상자 11명
- 시행횟수** 주1회 총 50회기 진행

김은영
사회복지사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

- 개요** '음악적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는 뇌 조직을 자극하여 생기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중증치매어르신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므로써 잊고 있던 기억과 감정을 되살려 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수행기간** 2018. 01. ~ 12.
- 대상** MMSE-K검사 결과 중증치매(확정적치매) 와상어르신 15명
- 시행횟수** 매주 총 50회기 진행

김미주
사회복지사



청각의심금화

- 개요** 중증와상어르신들을 위한 '청각 중심의 다감각' 프로그램! 회기별 다른 주제를 선정-살아온 시대 및 개인의 생애 히스토리가 반영된 개별자극을 통해 부동증후군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드리고자 합니다.
- 수행기간** 2018. 01. ~ 12.
- 대상** MMSE-K 검사 불가한 중증 와상어르신 10명
- 시행횟수** 격주로 총 25회기 진행

[전문요양팀] '공감케어'

어르신에 대한 공감능력
=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일상공감 : 어르신 일상생활은 휴먼케어의 지표입니다.

- * 일상생활관찰의 전문화 : 어르신 변화의 민감성 확대
 - 월 1회 ADL관찰기록평가
- * 일상생활기능상실의 지연
 - 생활 속 수시 맞춤 기능회복훈련 제공



|자존공감 :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 바로 어르신입니다.

- * 케어 전 걸언
- * 식사 전 손 씻기
- * 수치심 Zero 배설케어(스크린사용, 욕구반영)
- * 경어사용



토닥토닥운동 :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들이 자존공감을 실행하지 않을 때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체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정서공감 : 어르신이 전달하고자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 * 30분의 기적
 - 매일 30분 말벗으로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고 느끼도록 합니다.
- * 말씀의 경청 : 어르신이 무언가 요청하실 때
 - ① 먼저 손을 잡습니다. ② 나와 어르신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 ③ 진중히 듣고 즉시 처리합니다.



|기억공감 : 치매어르신의 상황을 알고,
기분을 같이 느끼고, 최선으로 대처합니다.

- * 치매어르신의 특정행동에 대한 대처 인-의-예-지 4가지 대원칙 생활화
 - 일어난 상황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 어르신이 놀라지 않게 의연히 대처합니다.
 - 최대한 예를 갖추어 안정시킵니다.
 - 안정에 실패하고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무조건 지지합니다.





기타로 전하는 사랑 '여섯줄사랑봉사단'

박영○ 어르신 : 오예~ 최고~ 잘생겼다! 계속 해라!

한영○ 어르신 : 저이들 고생했는데, 아무 것도 안 줘? (바나나를 내미시며) 야- 이거 갖다 줘!

오옥○ 어르신 : (어르신들 너무 오래 앉아계시면 힘들어 이제 그만한다는 말에) 우린 괜찮은데...

민순○ 어르신 : (손짓으로 사회복지사를 부르신 후) 신청곡 되나? 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신청 좀 해 줘.

이영○ 어르신 : 바쁘실텐데 이렇게 달마다 와서 봉사를 해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박옥○ 어르신 : 벌써 끝났어? 선생님들 오늘 고상 많았~어.

이옥○ 어르신 : 이렇게 노래 듣다보니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 그 땐 왜 그러고 살았는지. 참.

그 땐 여자들이 불쌍했어. 노래도 맘대로 못 부르고, 배우지도 못 하고...

김복○ 어르신 : (늦게 흥이 오르셔서) 벌써 끝났어? 아이~ 한참 신났는데...

이정○ 어르신 : 이것 봐! 손바닥이 빨개. 박수 하도 쳤더니 아프잖어.



“어엿씨구 ~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거기 뒤에 있는 군인오빠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라는 말에 열렬히 앞으로 나온 말년 병장의 노래가 흥겨운 기타소리와 참 잘 어울립니다. 부대에서 봉사 왔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마이크를 잡게 된 데는 여섯줄사랑봉사단 김순덕·김수완 선생님의 센스 넘치는 사회 솜씨가 큰 몫을 했습니다.

2017년 2월 첫 방문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여섯줄사랑봉사단 공연은 어르신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만점인데요. 기타연주와 노래가 라이브로 진행돼 듣고 있다보면 어깨가 절로 으쓱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이 라이브카페가 된 듯한 느낌이랄까요.

봉사단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곡들로 연주와 노래를 해주시는데요. <굳세어라 금순아>, <소양강처녀>와 같은 곡들을 들으니 옛 추억이 떠오르신다는 분도 계시고, 흥겨움에 춤추게 일으켜달라는 분도 계신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나 직원들이 봉사단 선생님들이 숨 돌리시는 중간 중간 노래 한 두곡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사실 작년 첫 공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이 기타 소리를 자주 접하지 않아 반응이 있으실까?’ 하고 걱정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연 시작하자마자 ‘쓸데 없는 걱정을 했구나’하고 반성했답니다. 첫 공연부터 호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호응이 더 뜨겁답니다.
함께 한 시간만큼, 만난 횟수만큼
어르신들의 박수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궁금하네요.

전팔순 어르신

‘그 때만 아무 것도 없었어’



나? 온지 오래 됐어. 내가 날짜도 안 잊어. 개원한 해 9월 30날 왔어. 아들이랑 황둔 가서 한우육회 먹고 들어왔지. 나 왔을 때는 2층이 딱 차서 3층으로 입소했는데, 막 자리잡기 시작할 때라 지금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없었어.

3층에 할아버지 셋이 있더라고. 여자는 나랑 최순* 할머니라고 교통사고로 눈 불편한 양반이 있었어. 그 할머니랑 친했는데,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간식 사갖고 오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다 조금씩 나눠주고 그랬지. 사이좋게 지냈어.

난 풍 맞아 들어왔어. 59살에 처음 중풍이 왔는데, 이후로 세 번이나 더 맞았어. 걷지를 못해 들어왔어. 처음에 몸 아프고 나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건강만큼 중한게 없는데…….

내가 아들 셋 딸 둘 오남매 중 막내인데, 나 네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엄청 고생 많았지. 우리 언니랑 형부가 나를 키웠어. 배끓지 말라고 20살에 시집을 보냈는데, 22살에 첫 아이를 낳았지. 어찌되었든 나도 사연이 많아. 우리 때 사람들 살아온 얘기로 책 몇 권 쓴다고 하잖어. 나도 그래. 그 시절 사람들 다 그래.

내가 다른 요양원 있다가 그 요양원이 망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건데, 처음에 3층 와서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 양옥* 이라고 나하고 동갑내기인 젊었을 적 친구가 같이 왔었거든. 많이 의지했는데, 자식들이 집에서 모신다고 데리고 갔어. 갈 때 “내 한 번 올게”하면서 커피 100개짜리를 사주고 갔는데 두 번 전화 오고 안 와. 사실 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 죽었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그냥 잘 살길 바랄 뿐이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

여기 지내면서 노래자랑 상도 두 번 타고 선물도 받고 그럴 적에는 참 재미있었지. 손녀 보고 자랑도 하고 그랬다니까. 손녀가 “에헤헤”하고 웃던 모습이 생각나네.

프로그램 중에서는 원예치료가 좋아. 솔직히 다른 것들은 머리에 잘 안 남아. 썩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물도 떠다주고,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 방도 좋아.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도 좋고, 해도 잘 들거든. 내가 얼마 전에 직원한테 얘기했어. 난 죽을 때까지 이 방에 있을 거라고.

내년이면 내가 여기 온지 10년이야. 그동안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 같이 살던 이하고 싸운 적도 있고, 직원한테 서운한 적도 있었지. 솔직히 내 속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인들 오죽하겠어. 여럿이 사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 사람이 다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 수 없는거잖아.

동기간이고 남남이고 간에 서로 잘 해야지. 더구나 이렇게 여럿이 사는데서는 더 노력해야지. 안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살거야. 자네들도 그리 살어.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하영미
영양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도 줄 그트머리에 서서 인사를 건네는 하영미 영양사. 모든 직원들에게 가장 편안한 점심시간이 하 영양사에게는 가장 바쁜 시간이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밥상이 담긴 배식카 세 대가 각 생활동으로 올라가고 나자 하 영양사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어르신~ 오늘 국 간은 어떠세요?”

혈압 높은 어르신들이 많아 염도계로 항상 일정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날마다 묻는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미각이 둔해져 갈수록 간이 짜지는데, 처음에 입소하셔서서는 싱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실 경우는 장이나 소금을 별도로 제공하고는 있지만, 권하지는 않아요. 우리 요양원은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직접 우린 천연육수를 베이스로 쓰고 있어요. 덜 자극적이라 처음에는 습습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입에 익으면 잘 드시거든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영양사는 식사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식단표 짜고, 재료 발주하고, 들어온 재료 검수하고, 레시피를 조리원들에게 제공하고, 의도한 바대로 조리가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일 뿐 아니라, 조리원 관리 / 급식예산관리 / 영양관리 / 급식위생관리 등을 총망라하는 것이 영양사의 업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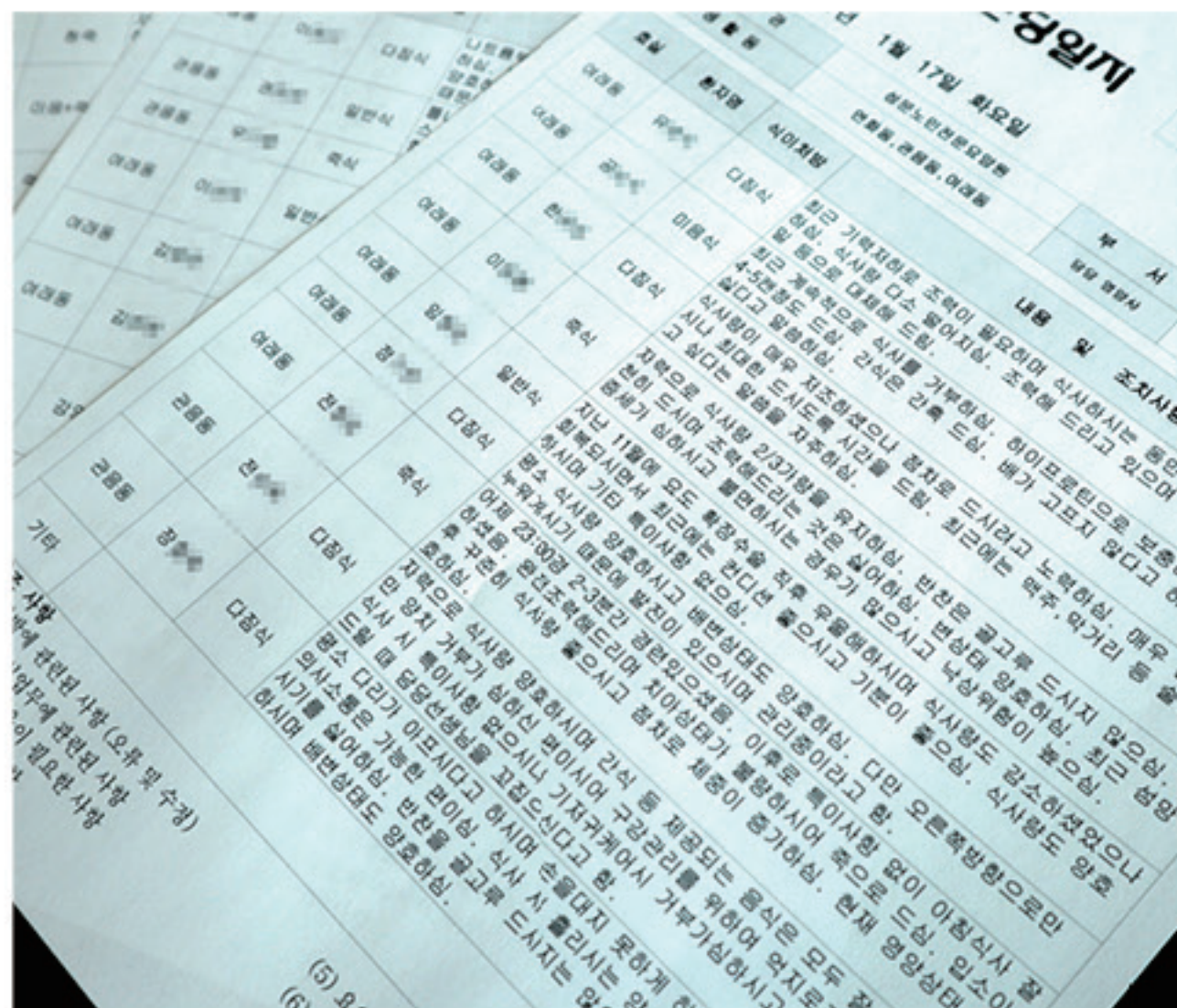
만성질환을 최소 2~3가지 이상 갖고 있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는 식단표를 짤 때부터 고려해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저작이나 연하기능에 따라 일반식/ 다짐식/ 죽식으로 구분되고, 고단백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특화된 유동식을 제공한다. 그 반대로 단백질이 제한되어야 하는 통풍 등의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실 때 그 분을 위해서는 두부 등을 별도로 준비한다.

그 외 “나는 백김치는 싫어”, “나는 김치 크게 잘라줘”,

“난 팔죽은 못 먹어”, “난 호박죽 좋아해. 호박죽 나오는 날은 밥 말고 그거 줘” 등등 소소한 어르신들의 요청도 한 귀로 흘러들지 않고, 반상기 옆 이름표에 적어둔다. ‘1년 365일 삼시세끼에 간식 두 번. 많은 어르신들 일일이 챙기려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어르신들 선호도를 영양사가 모르면 쓰나요. 그게 제 일인데요”라며 웃는다.

하 영양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정량을 제 시간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 좋은 약이 많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한 끼 한 끼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입맛은 확연히 다른데, 배춧국을 끓일 때 콩가루를 섞거나, 구수한 된장을 넣고 시래기를 지저내면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하신단다. ‘음식’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름 원칙이 있어요. 제철재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영양소가 고루 들어가도록 해요. 제철음식이라는 건 그 시기에 영양소가 가장 많다는 것이거든요. 밥상을 통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담겼을 때의 색깔/ 식감/ 재료/ 조리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조화로운 밥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어제 저녁 시뻘건 고춧가루만 가득하던 내 밥상이 문득 떠오른다.



라운딩일지는 하 영양사의 기록이자 어르신들의 히스토리이다.

간혹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다 요양원에 와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눈에 띄게 얼굴이 좋아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심에 따라 음식을 씹고, 소화-흡수시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련만 드시고자 하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못 드시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실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조리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기에 영양사에게는 점심마저도 평가 시간이고 회의 시간인 것이다.

“물론 ‘맛있게 잘 먹었다’, ‘맛나서 두 번이나 먹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고쳐야 할 점을 꼭 짚어 이야기해주는 분들도 좋아요. 어르신들은 일하느라 고생한 사람들 생각해서 ‘다 좋다’,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오늘 밥이 되더라, 쌀 바꿨어?’라고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소중하다는 하 영양사! 그녀의 고민과 배려가 녹아 있는 오늘 밥상이 한없이 정겹다.



2018. 주요 장기요양급여 정책

▶ 경증치매 어르신 혜택 확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현행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C(非치매)	
					5등급	등급외 B~C(치매)
	95	75	60	51	45	(요양인정점수)
등급체계 개편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C(非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한,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 2018. 장기요양수가 인상

2018년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11.34%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유형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유형별	평균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	11.34	9.87	7.6	10.1	9.57	14.68	0	2.04

▶ 중위소득 100%이하의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이 금년보다 30,060원~35,160원 증가하여 월 334,680원~39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2018. 수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을 참조해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확대

그 동안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존 중위 소득 100%까지('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 변화]

(단위 : 원)

		'17년 본인부담금	'18년 본인부담금	'18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00% 이하
재가 급여	1등급	187,800	208,120	83,240	124,870
	2등급	165,510	183,520	73,400	110,110
	3등급	156,550	172,890	69,150	103,730
	4등급	147,780	162,390	64,950	97,430
	5등급	126,480	138,990	55,590	83,390
시설 급여	1등급	355,980	391,140	156,450	234,680
	2등급	330,360	362,940	145,170	217,760
	3~5등급	304,620	334,680	133,870	200,800

2018. 장기요양수가 및 요양비 안내

보건복지부 제2018-6호(2018.1.1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 2018. 장기요양수가가 1월 기준 9.87% 인상되었으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등급	2017. 수가(A)	2018. 수가(B)	증가액(B)-(A)
일반실	1	59,330	65,190	5,860
	2	55,060	60,490	5,430
	3, 4, 5	50,770	55,780	5,010
치매전담실 (가형)	2	67,900	74,600	6,700
	3, 4, 5	62,610	68,790	6,180

30일 기준 보호자님들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단위 : 원)

구 분	등급	A. 장기요양 급여비용	B. 공단지원 (A의 80%)	월본인부담금			2017. 대비증가액
				C. 본인부담 (A의 20%)	D. 비급여 (식비)	합계 (C+D)	
일반실	1	1,955,700	1,564,560	391,140	225,000	616,140	35,160
	2	1,814,700	1,451,760	362,940		587,940	32,580
	3, 4, 5	1,673,400	1,338,720	334,680		559,680	30,060
치매 전담실 (가형)	2	2,238,000	1,790,400	447,600		672,600	40,200
	3, 4, 5	2,063,700	1,650,960	412,740		637,740	67,080

▶ 경감대상자

(단위 : 원)

구 분	등급	A. 장기요양 급여비용	B. 공단지원 (A의 90%)	월본인부담금			2017. 대비증가액
				C. 본인부담 (A의 10%)	D. 비급여 (식비)	합계 (C+D)	
일반실	1	1,955,700	1,760,130	195,570	225,000	420,570	17,580
	2	1,814,700	1,633,230	181,470		406,470	16,290
	3, 4, 5	1,673,400	1,506,060	167,340		392,340	15,030
치매 전담실 (가형)	2	2,238,000	2,014,200	223,800		448,800	20,100
	3, 4, 5	2,063,700	1,857,330	206,370		431,370	18,540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무료

'행복' 선택이 아닌 '권리'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민진홍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높은 산이나 바다 끝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은 늘 동일하게 흐르고, 해도 늘 같은 해인데 정해진 시간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시간을 구분하고 떠오르는 해에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며 더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 세계 수출 7위의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에는 3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2017년 기준 OECD 35개 국가 중 29위, 2015년 세계행복지수보고서에서는 세계 158개국 중 47위에 불과하고, 갤럽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는 조사대상 143개국 중 118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 중 행복지수는 오히려 높은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트는 것이다.”

윌리엄 조지 조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행복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도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 돈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 학대받는 아동과 노인들…… 불행이 존재하는 곳에 가 보면 인권이 유린되고, 존중과 배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원)

2017. 01. 01. ~ 12. 31.

세입			세출		
예산과목		정산액	예산과목		정산액
세입총계		2,439,328,823	세출총계		2,350,547,909
보조금	시군구보조금	49,276,160	사무비	인건비	1,691,688,074
	시도보조금	38,727,000		업무추진비	5,995,450
	소계	88,003,160		운영비	117,979,499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58,744,920		소계	1,815,663,023
	지정후원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111,970,680
	소계	58,744,920		소계	111,970,680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10,000,000	사업비	운영비	361,502,376
	소계	10,000,000		사업비	59,146,050
이월금	이월금	65,284,759		소계	390,648,426
	이월후원금	11,203,657	전출금	전출금	-
	이월보조금	609,260		소계	-
	소계	77,097,676	잡지출	잡지출	1,656,13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		소계	1,656,130
	예금이자 수입	160,990	예비비	예비비	-
	기타잡수입	42,835,847		반환금	609,650
	소계	42,996,837		소계	609,650
입소자 부담금수입	본인부담금	266,837,350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
	비급여	203,671,650		소계	-
	소계	470,509,000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30,000,000
요양급여 수입	장기요양급여	1,691,977,230		소계	30,000,000
	소계	1,691,977,230			

2017년 후원금 결산내역 (단위:원)

2017. 01. 01. ~ 12. 31.

구분	수입	지출내용		잔액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	-	10,335,117
비지정후원금	58,744,920	비지정후원금	48,409,803	
전년도이월후원금	11,203,657	전년도이월후원금	11,203,657	
법인전입금(후원금)	10,000,000	법인전입금(후원금)	10,000,000	
합계	79,948,577	합계	69,613,460	



2018년 상반기 주요일정

월	어르신 및 보호자 참여 일정	직원 역량강화 및 주요 일정
1월		· 소양교육
2월	· 설날 행사 '행복잔치'	· 산업안전교육/개인정보보호/기능회복훈련 교육
3월	· 정월대보름 행사 '달맞이 잔치' · 구충제 복용 · 수급자 낙상 및 욕창 예방교육	· 상반기 소방안전교육 · 욕창예방 및 관리 교육 · 영양보호사 연하장애 예방 및 관리 교육 · 제1차 운영위원회 · 제1차 전직원 간담회 · 제1차 노사협의회
4월		·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 · 낙상 예방 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5월	·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孝' · 보호자 간담회 · 수급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 단오행사 · 기초건강검진(혈액검사)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 친절예절교육
6월	· 상반기 재난대피훈련	· 상반기 재난대피훈련 · 감염예방 및 관리 교육 · 영양보호사 배설 관리 교육 · 제2차 운영위원회 · 제2차 전직원 간담회 · 제2차 노사협의회

성문 서포터즈

후원안내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후원품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기업은행 128-082332-01-022

기업은행 128-082332-01-143

※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자원봉사 안내

성문에서 어르신들의 '행복 동반자'를 찾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재능, 훈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실 분들은 바로 전화주세요 .

활동내용 | 케어봉사(나들이, 말벗, 식사보조, 생활동 청소 등)
전문봉사(의료봉사, 레크리에이션, 심리상담,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신청방법 | 전화 (033)745-9179 홈페이지 www.sungmuncare.or.kr



어르신을 공경하겠습니다.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